

피부근염 환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1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강연주¹⁾, 박인혜¹⁾, 안가영¹⁾

피부근염은 대칭적인 근위부의 근력저하 및 근위축을 동반 하는 특발성 염증성 근육 병증이다. 피부근염 환자의 약 20-30% 에서 진단 후 5년 이내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피부 증상의 악화 여부는 악성 종양의 임상경과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피부근염과 동반된 유방암 환자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진단, 치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3세 여환으로 2개월 전부터 양측 상 하지의 근무력 및 얼굴 부종, 피부 발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근육효소수치는 최고 1467 IU/L 로 상승 측정되어 있었고 근전도상 근육염의 소견을 보였다. 피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피부근병증 의심소견을 확인하였다. 피부근염 진단 하 프레드니솔론 60mg 투약 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10개월 뒤 양측 상하지 근력 2도의 감소, 연하곤란 및 헬리오트로프 발진 동반되어 외래 내원하였다. 흉부/복부 전산화단층 촬영 상 3.6 cm 우측 유방종괴와 동측 액와림프절 종대 소견 확인되었다. 또한 약 11cm의 간내 저음영의 경계가 불명확한 종괴가 보여 유방암에 의한 간전이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figure1). 초음파 유도 하 조직검사 상 침윤성 관상 유방암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역화학염색검사 상 호르몬수용체 양성, C-erb 2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앙검체를 이용한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 상 PALB2에 병적변이가 확인되었다. 환자는 Adriamycin 과 cyclophosphamide 병합 항암제와 피부근염 치료를 위해 프레드니솔론 50mg을 투여하였다. 항암 치료 하면서 간전이 부위 종양의 감소가 30% 이상 보여 부분반응으로 평가하였으며 피부근염은 보행과 식이가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었다. 혈액검사상 CPK, LDH, aldolase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 소견 확인하였다. 피부근염 환자의 상당수에서 악성 종양이 수반되며 피부근염 진단 시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악성 종양 동반 유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초기 선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근염의 임상경과가 내부 장기의 악성 종양의 경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을때 피부근염이 악화 되는 경우 악성 종양의 재발이나 전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